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 도 자 료**	(배포) 2018. 6. 19(화)
즉시 사용		
담 당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과장 권혜린, 사무관 정재상 (044-200-2068, 2533)

이낙연 국무총리, 제7차 총리·부총리협의회 개최

- 국민의 고통에 공감할 것과 정부대책을 진중하게 마련해 대응해 줄 것을 당부

□ **이낙연 국무총리**는 6월 19일(화) 오전,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**제7차 총리·부총리 협의회를 개최**했습니다.

○ 오늘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, 김상곤 사회부총리, 조명균 통일부장관,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고, 자료없이 현안 위주로 폭넓게 논의했습니다.

□ 오늘 회의에서는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,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·제도, 남북·북미 회담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습니다.

○ **경제분야**에서는 △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 관련 사항 △'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(6.19, 공운위 개최),

○ **사회분야**에서는 △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(행정예고, 6.22),

○ **외교안보분야**에서는 △대통령 러시아 순방 계획(6.21~24) △남북 체육회담(6.18) 결과 및 후속조치 등을 중점 논의 했습니다.

□ 이 총리는 최근 고용과 분배 관련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고,

○ 정부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**정부가 같이 아파하고 공감**하면서, **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중하고 무겁게 대응**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.

□ 제8차 총리·부총리 협의회는 **7월 3일**(화, 잠정) 개최 예정입니다.